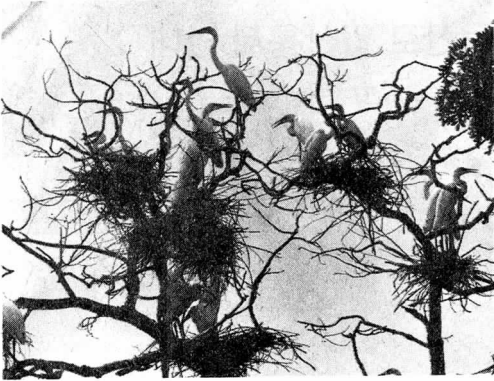


## 중대백로

學名 *Egretta alba modesta*  
 英名 Grent Egret.



우리나라에 기록된 모양새가 비슷한 흰색의 백로류는 5종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숫자가 많은 종류가 중대백로이다. 전국 어느 지역의 논이나 강, 물이 있는 곳에서는 흔히 보는 물새이다.

백설보다 더 흰 몸매에 긴다리와 긴목은 고고함을 더하여 일반적으로 鶴이라 부르지만 실제 학은 두루미를 뜻하는데 분류학상으로는 거리가 멀다.

옛부터 백로는 농작물을 절대 해치지 않는 새라 하여 瑞鳥로 불렸고 번식기에 둥지도 마을 근처의 나무가지 위에다 짓기 때문에 백로가 사는 마을을 학마을이라 불렀다. 그래서 불임성이 있는 이새를 마을사람들은 특별히 보호해 왔고, 때로는 번식지를 옮기던지 날아 오지 않으면 불길하게 생각해 오기도 하였다.

못자리가 초록빛을 더 할때 들판에 한가로이 노니는 백로는 한쪽의 그림을 연상케 하고 그지없이 평화스러움을 자아낸다.

중대백로는 이땅에서 번식하므로 우리나라가 고향이다.

월동지인 대만, 필리핀에 이르는 동남아시아에서 3월 초순이면 북상하여 각자 태어난 고향으로 날아가 잎새도 채 나오지 않은 나무에서 진을 치며 종족유지 본능을 잉태하게 된다.

글·사진 李正雨(鳥類研究家)

둥지는 전년도의 헌집을 보수하기도 하고 새로 나무가지를 물어다 접시형으로 짓는데 보기에 영성하지만 실제 사람이 다가가면 알을 떨어트리는 일과 새끼를 떨어트리는 일들이 더러 생긴다.

산란은 4월초순에 청록색의 알을 4개정도 낳고 25~26일쯤 품으면 어린새가 부화되는데 어미는 주로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아먹고 반소화시킨것을 되새김하여 새끼를 기른다.

육추기간은 30-40일쯤 걸리고 천적을 방어하는 능력은 이 어린새에게도 있어 다가가면 먹었던 먹이를 토해서 뿌리는, 바뀔말해 오물세레로 적을 막아내는 능력이 있다.

암수를 걸으로는 식별이 않될 정도로 같고 번식기에는 등판에 수십가락의 비단결같은 아름다운 장식깃이 있는데 이 장식깃은 번식기를 마감하면서 빠져버린다.

예전에 일본의 지배속에 있던 일제시대 때에는 이 장식깃을 들판에서 주워 모아 일본 관헌의 모자 장식에 쓰기위해 供出형태로 매입을 했는데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깃의 뿌리에 바늘을 꽂아 무게를 속여 먹었다는 웃지못할 일이 있기도 하였다.

중대백로는 근간 농약에 의한 피해로 상당한 숫자가 희생을 당한다.

그 옛날에 눈에 흔하던 물방게나 미꾸리, 송사리는 농약으로 인해 없어진지 오래이고 일부가 물길을 따라 부분적으로만 잔존하는 오늘날 백로가 주식으로 하는 이들이 각종 유해 중금속의 축적으로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대백로 번식지는 여주 신접리, 해남 방충리, 무안 용월리, 양양 포매리, 통영 도선리 등지가 가장 무리의 단위가 커서 이들 번식지를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 보호하고 있고 그 외 강화 유도, 삼천포, 학섬, 진도, 고사도, 철원, 남해 등등 그외 수십 군데의 번식지가 있다. 겨울철에도 가끔 보이는 백로는 몸에 손상을 입은 길잃은 철새들이다.